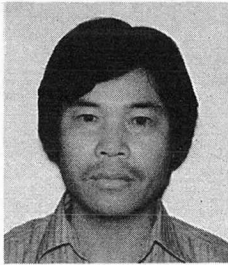


하반기의 양돈경기 전망과 대책



김 용 진
(축협중앙회 조사부 과장)

지난해 말 4백80만1천두에서 금년 3월 현재 4백30만3천두로 급격히 줄어든 사육두수를 회복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돼지 공급량의 부족에 따른 돼지값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사육동향과 전망

가. 사육동향

'89년 6월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9월에는 5백46만7천두로 최고의 사육두수를 기록하였던 돼지마리수는 그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90년 3월 현재 4백30만3천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3개월전보다 49만8천두(10.4%), 1년전보다 62만9천두(12.8%)가 각각 감소한 것이며, 모돈수는 3개월전보다 3만3천두(5.3%), 1년전보다는 17만7천두(23.0%)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돼지 사육호수에 있어서도 '90년 3월 현재 16만5천호로 1년전인 '89년 3월의 24만1천호에 비해 7만6천호(31.5%)가 감소하였고, 3개월전인 '89년 12월의 19만8천호에 비해 3만3천호(16.7%)가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감소 이유는 지난해 돼지값 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었고, 또한 축산배설물 단속 강화로 인한 배설물 처리시설비 부담 가중으로 빠른 속도로 양돈업을 포기하거나 사육두수를 감소한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1〉 돼지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 (천호, 천두)

구 분	'90. 3	'89. 12	'89. 3	증 감	
	(1)	(2)	(3)	(1/2)	(1/3)
사육호수	165	198	241	△16.7	△31.5
총 두 수	4,303	4,801	4,932	△10.4	△12.8
2개월미만	1,267	1,246	1,593	1.7	△20.5
2~4개월	1,445	1,813	1,553	△20.3	△7.0
4~6개월	938	1,045	942	△10.2	△0.4
6~8개월	72	75	112	△4.0	△35.7
8개월이상	581	622	732	△6.6	20.6
모 돈 수	594	627	771	△5.3	△23.0
6~8개월	53	48	85	10.4	△37.6
8개월이상	541	580	686	△6.7	△21.1

한편 사육규모별 마리수 증감상태를 보면, 100두 미만 규모에서는 1년전에 비해 무려 32.6%나 크게 감소하였고, 100두 이상 1,000두 미만 사육규모에서는 1년전에 비해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당 사

육규모는 '89년 3월 20.5두에서 '89년 12월 24.3두, '90년 3월 26.1두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적정규모사육으로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양돈농가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표2〉 사육규모별 마리수 (천두, %)

구 분	'90. 3	'89. 12	'89. 3	증 △ 감	
	(1)	(2)	(3)	(1/2)	(1/3)
1~99두	1,276	1,581	1,892	△19.3	△32.6
100~999두	2,079	2,234	2,033	△6.9	2.3
1,000~9,999두	792	804	789	△1.5	0.4
10,000두 이상	156	182	218	△14.3	△28.4
계	4,303	4,801	4,932	△10.4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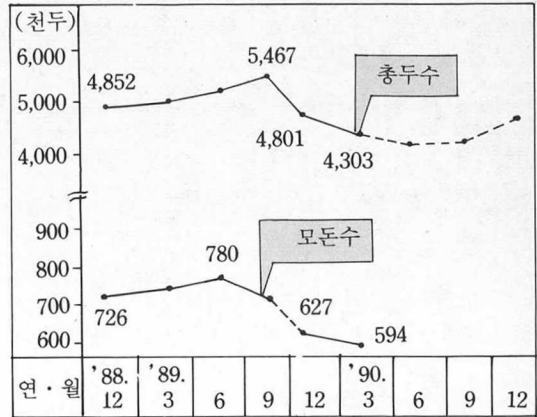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현황은 '90년 4월 총생산량이 26만8천톤으로 1년전 동월과 비교하여 15.5%의 감소를 보였으며, 용도별 생산실적 또한 찢먹이용만 4.6%의 증가를 나타냈을 뿐 육성용 18.2%, 모돈용 9.1%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했음을 나타낸 반면, 금년들어 돼지가격의 지속적인 강세로 양돈농가의 사육의욕이 고조되어 2개월 미만의 찢먹이용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3〉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현황 (천M/T)

구 분	89.1	2	3	4	5	8	11	12	90.1	2	3	4
총생산량	326	291	342	317	351	349	356	351	305	281	294	268
찢먹이용	60	54	64	65	73	66	61	60	55	51	61	68
육성용	173	148	169	154	176	198	214	209	173	155	153	126
모돈용	51	50	59	55	57	49	46	49	47	47	52	50

나. 사육전망

하반기의 돼지 사육마리수는 약간 감소후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90년 6월에는 4백4만두로 3월보다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90년 9월에는 4백8만두로 약간 증가가 예상되며, '90년 12월에는 4백22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돼지두수 변동상황

이와같이 사육마리수가 약간 증가한후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이유는 모돈수가 '89년 9월 70만5천두에서 '89년 12월 62만7천두, '90년 3월 59만4천두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축산배설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배설물 정화시설의 단속이 강화되어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육할 경우 축산배설물 처리시설비 과중으로 증식이 어렵고, 농촌의 인력난 및 지난해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농가가 다시 가격파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신규참여가 결코 쉽지않은 양기 때문이다.

2. 가격동향과 전망

가. 가격동향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던 산지돼지값은 지난해 연말부터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90년 6월초 현재 큰 돼지(90kg)기준 18만원 수준으로 1년전보다 92%, 자돈은 4만8천원 수준으로 85%가 각각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돼지값의 상승은 지난해 돼지값 침체로 사



올 하반기의 돼지값은 상반기와 같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이후 급격한 모돈수의 감소와 소규모 양돈농가의 폐업내지 사육두수 감소, 환경오염 단속의 강화로 인한 신규참여의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4〉 돼지값 동향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육 돈 (90kg)	'90	116	114	122	144	180							
	'89	112	106	99	98	94	93	91	89	92	88	79	85
자 돈	'90	27	30	33	38	48							
	'89	34	33	30	28	26	23	22	20	21	20	18	18

육두수가 한꺼번에 많이 줄어들어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되고 있다.

나. 가격전망

올 하반기의 돼지값은 상반기와 같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이후 급격한 모돈수의 감소와 소규모 양돈농가의 폐업내지 사육두수 감소, 환경오염 단속의 강화로 인한 신규참여의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말 4백80만1천두에서 금년 3월 현재 4백30만3천두로 급격히 줄어든 사육두수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또한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약간씩의 수요증가와 높은 쇠고기값 지속으로 인한 대체수요 등을 감안할 때 돼지 공급량의 부족에 따른 돼지값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수입쇠고기의 방출물량 및 방출지역 확대와 더불어 돈육의 지속적인 수출 촉진 및 육가공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업체에 한해 돼지고기를 수입토록 한 정부의 돈육 수입정책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육가공업체들의 원료육 수입 선례가 됨으로써 국내 양돈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돼지값 변동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비동향과 전망

'90년 4월 현재 전국 돼지 도축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1~4월 도축실적이 전년 동기간보다 월평균 8% 정도 증가하였으나, 사육두수 과다에 따른 도축두수가 증가한 작년 말에 비해서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금년 3월 기준 돼지고기두수는 4백30만3천두로 1년전에 비해 62만9천두, 즉 12.8%나 줄었는데도 금년 1~4

〈표5〉 전국 도축두수 현황

(천두/월)

구 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90년(1)	759	700	782	715									
'89년(2)	719	614	722	690	765	738	749	837	831	788	871	1,105	9,426
(1/2), %	106	114	108	104									

〈표6〉 연도별 돈육 소비량

(천M/톤, %)

구 분	'82	'83	'84	'85	'86	'87	'88	'89	90전망
소 비 량	238	295	340	346	320	373	425	472	480
전년대비 증 감 율	13.3	23.9	15.3	1.8	△7.5	16.6	13.9	11.1	1.7

월 도축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8% 정도 늘어난 것은 금년들어 가격이 갑자기 좋아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비육 출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의 도축두수는 71만5천두로 3월보다는 8.6%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출하물량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출하물량의 감소현상으로 6월 현재 돼지값은 크게 상승한 상태에 있다.

한편 돈육소비량은 '82년 이후 '89년까지 연평균 11.1%의 높은 소비신장율을 보였으나,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돼지고기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해의 47만2천톤에서 소폭 증가한 4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문제점 및 대책

불과 얼마전인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두수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두수감축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돈육수출을 권장·의무화시켰던 대규모 양돈장, 기업에 통조림 원료육에 한한다고 하지만 돈육수입을 유도하고 있다. 사육두수가 지난 9월 5백47만두 수준으로 최고에 이르렀다가, 금년 3월 현재 4백30만두로 6개월 이란 짧은 기간에 1백17만두 가량이 감소했고, 가격도 지난해말 90kg 성돈 1마리가 8만5천원하던 것이 5월말 현재 18만원까지 폭등했다.

결국 이와 같은 두수와 가격의 단기간의 큰 폭 변동

은 양돈농가의 사육심리가 극히 불안정하고, 장기적인 양돈업 전망을 매우 불확실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가격에 대한 대책이 근시안적이어서 현재 상태의 가격변동에만 너무 예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급기야는 돼지고기를 수입한다고 까지 발표하게 되어 국내 돼지사육기반을 흔들리게 하며, 양돈농가로 하여금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직면하여 국내 양돈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돼지고기를 모색해야겠다. 이를 위해선 양돈농가, 정부, 축협 등 유관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치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즉, 양돈농가는 규격돈(規格豚) 생산으로 육질개선 및 출하체중 증가, 정부 및 축협과 서로 협조하여 사육두수의 자율적 조절을 기해야 한다. 또 정부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細率) 적용, 수입 사료곡물 및 축산기자재 관세인하, 기계화에 따른 제반 시설 설치자금의 지원과 더불어 양돈농가가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는 양돈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축협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양돈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양돈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양돈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